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배용준·박진영 손잡고 드라마 '드림하이' 제작

한류스타 배용준과 가요계 미다스의 손 박진영이 손잡은 드라마 '드림하이'가 내년 1월 KBS를 통해 방송된다.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자사와 박진영이 최대 주주인 JYP엔터테인먼트, CJ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드림하이'의 내년 1월 KBS 방송이 확정돼 출연진을 뽑는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예 예술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드림하이'는 스타를 꿈꾸는 청춘들의 꿈과 사랑을 그린다. 배용준은 이 드라마의 기획과 프로듀싱 외에 직접 출연도 할 전망이다. 박진영은 극에 쓰일 음원의 작사·작곡·편곡, 배우의 보컬과 댄스 트레이닝을 맡는다.

'자이언트'서 연기 재미 빠진

황정음

잠 못 잘 만큼 바빠 몸은 녹초지만 너무 행복하답니다

예쁘지만 연기 못하는 배우 악평
'하이킥' 이후 CF 무려 17편 찍어
"연기력 재평가 무엇보다 기뻐"

"'지붕뚫고 하이킥'은 제게 너무 고마운 작품이고 '자이언트'는 절 연기자로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 작품입니다."

황정음(25)은 이렇게 말하며 맑은 웃음을 지었다.

MBC TV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으로 인생이 바뀐 후 여세를 몰아 SBS TV 대하드라마 '자이언트'의 주연으로 캐스팅된 그는 "잠을 못 자는 빡빡한 스케줄에도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요즘 영화 '고사' 개봉인사가 겹쳐서 그렇지 드라마 촬영 스케줄은 힘들지 않아요. '지붕뚫고 하이킥' 때 워낙 기막힌 스케줄을 소화했기 때문에 '자이언트' 정도야(웃음)"

그는 '지붕뚫고 하이킥' 이후 CF를 무려 17편 찍었다. 그 작품 출연자 중 단연 최고 기록이다. 이전까지 '아이돌 가수 출신의 예쁘지만 연기 못 하는 탤런트'에 머물던 그는 '지붕뚫고 하이킥' 이후 광고계 최고 스타로 부상한 동시에 연기자로서도 재평가를 받게됐다.

"'지붕뚫고 하이킥'의 반응이 제 몸으로 느껴졌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당시 광고 에이전시에서 그룹 빅뱅보다 제 스케줄 잡기가 더 어렵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때 '우리 결혼했어요'의 촬영도 병행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행복했기 때문에 녹초가 돼 집에 돌아가도 웃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겨울새' 등에서 '국어책 읽는 연기'를 펼친다는 지적을 받았던 황정음은 '지붕뚫고 하이킥'을 통해 순발력과 유연성을 배웠고 그만의 통통 튀는 매력을 정확하게 끄집어내 시청자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그 인기를 바탕으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시대극 '자이언트'에 주인공 3남매의 막내 미주로 캐스팅돼 정극 연기에 다시 도전하고 있다.

"연기에 대해 점점 더 욕심이 나요. 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은 것을 잘 알지만 그 역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럴수록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연기를 시작한 지 이제 3~4년인데 너무 부족하죠. 하나하나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가 연기하는 미주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이 어렵게 살아가느라 식모, 버스 안내양 등 고생하며 살아왔지만 예쁜 얼굴과 빼어난 노래 실력으로 언젠가는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살고 있다.

"미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캔디처럼 꿋꿋하게 살아가는 씩씩한 여성이에요. 무엇보다 두 오빠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죠. 사실 주인공 3남매의 형제애가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십수 년을 헤어져 살았기 때문에 옛정이 남아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역이 연기했던 1~8회를 떠올렸어요. 그 부분을 보면 이들이 끈끈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거든요. 3남매의 진한 형제애가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가수를 꿈꾸는 미주는 극 중 주로 혜은이의 노래로 연습을 한다. '감수광' '제3 한강교' '당신은 모르실거야' 등을 흥얼거리는 미주는 곧 톱가수로 성장할 전망이다.

"옛날 노래들이 너무 어려워요.(웃음) 그런데 그중에서 혜은이 선배님의 노래가 저랑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분의 곡들을 주로 연습하고 있어요."

그는 "요즘 '연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게 조금씩 보인다. 현장에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선배님들께 물어본다"며 "연기가 정말 재미있고 잘하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

'인생은 아름다워' 송 창 의

"김수현 작가 수위조절 뛰어나 동성애 연기 낯뜨겁지 않네요"

"이미지를 걱정했다면 이 역을 못 맡았을 겁니다. 전 우리 드라마를 통해 동성애자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SBS TV 주말극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동성애자 태섭을 연기하는 송창의(31)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분명했다.

시청률이 20% 대로 진입한 '인생은 아름다워''는 태섭의 '커밍아웃' 폭탄을 터뜨린 후 이제는 태섭과 그의 연인인 경수(이상우)의 결혼식을 추진하고 있다.

둘의 커밍아웃만으로도 주말 안방극장에는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김수현 작가는 둘의 알콩달콩한 연애를 이성연애 못지 않게 구체적이며 거리낌 없이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 결혼식이라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제가 입기 힘든 역할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못 할 거예요. 저도 낯뜨거워서 연기하겠어요? 하지만 김수현 작가님은 대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표현을 해주세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풀어주시니 저도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수위 조절을 잘하신다고 할까요? 너무 표현이 안 돼도, 또 너무 과해도 문제인데 배우가 이해하고 연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작가님의 힘이 대단하신거죠."

그래도 갈수록 대담해지는 태섭과 경수의 애정 표현이 배우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더 고민되는 점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우(경수 역)와 호흡이 더 잘 맞으니까요. 또 이미지가 고민이 됐다면 처음부터 아예 못 맡았죠. 전 동성애자 역할이 하나의 굵직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배우로서 이런 역할을 맡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굵직한 캐릭터를 소화해내고 싶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수현 작가님이 대단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번에 대본을 보면서 다시 놀랐다. 기대 이상으로 디테일이 잘 살아있고, 모든 감정이 구체적이고 섬세해 놀랐다"며 "무엇보다 작가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껴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닷가에서 태섭과 경수의 데이트 장면도 그렇고, 경수 어머니가 태섭을 처음 찾아와 분노를 퍼부을 때의 장면 등에서 제가 태섭이 어떻게 할 것 같다고 예상하면 작가님이 그렇게 대본에 이미 써놓으신 거예요. 캐릭터의 감정의 흐름을 작가님과 배우인 제가 서로 해석하고 읊는데 그게 무언중에 일치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는 합니다."

그는 "극 중 태섭과 경수가 결혼식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어떻게 되든 드라마 제목처럼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